2022년 1월 1일 (백)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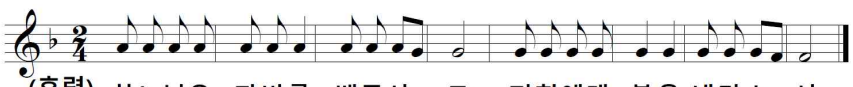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민수 6,22-27-10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 2 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제 2 독서] ····· 갈라 4, 4-7

[복음환호송] ·····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2, 16-21

[성가안내]

- 입당성가 [104] 사랑하올 아기 예수
- 봉헌성가 [250] 굽어보소서 성모여
- 성체성가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 파견성가 [44] 평화를 주옵소서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새해 첫날에

– 이 경자 –

새해 새날에
마음의 서랍에 새 파일을 넣고
일년 스케쥴 목록을 쓰고
첫날부터 실천하겠어요
새해 아침 명경을 보며
웃는 연습 시작하고
그녀와 사랑할래요.

이웃과 화해와 용서로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겠어요
꽁꽁 언 강물 밑에 물고기가 출렁이고
어둠 속에서 씨앗들 봄을 꿈꾸듯
새해에는 보라색 꿈을 갖겠어요.

매일 들이 쉬는 공기
값없이 얻는 것이라 잊지 말며
모습을 감추고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어루만지는 바람에게
따뜻하게 우주를 포옹하는 햇님에게 감사하며
마음 안에 주머니 하나 걸어 두고
감사로 채우도록 하겠어요.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월1일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목 알버트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양미숙 마리아	최미루, 정동주 한서희	김은아 권민호
1월2일	이영노 율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권민호 바오로	김은아 미카엘라

오늘의 묵상

요즈음 세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리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평화가 사라진 듯한 두려움과 공포에 싸여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신 하느님의축복과 평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태어나신 주님 성탄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 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총이며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 성자께서 탄생하신 기쁨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와 강생의 신비를 통한 은총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인 목자들의 이야기에서 성모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곰곰이 되새기시는' 분으로 표현되십니다. 성모님의 잉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느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성모님의 돌보심과 전구에 의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기도에 나오듯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고, 언제나 축복과 은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확실하며, 어려움과 불안 그리고 고통과 실망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또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성모님과 늘 함께하고 성모님께 의지하는 삶은 우리를 하느님의 계획 안에 살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하는 기쁜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끌어 줍니다.

- 신우식 토마스 신부 -

새해의 기도

- 이 해인 -

1월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 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2월에는
내 마음에 꿈이 싹트게 하소서.
하얀 백지에 내 아름다운 꿈이
또렷이 그려지게 하소서.

3월에는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하소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삶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게 하소서.

4월에는
내 마음이 성실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작은 일 작은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5월에는
내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하소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은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가슴이 물들게 하소서.

6월에는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소서
남을 귀히 여기고 자랑과 교만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게 하소서.

7월에는
내 마음이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어려움을 참고 오랜 기다림이 없이
좋은 열매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8월에는
내 마음에 쉼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키고 나와 남을 여유있게 할
쉼을 갖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9월에는
내 마음이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마음의 평화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니
내가 성숙할 때 함께 자라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10월에는
내 마음이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나의 오늘이 있게 한 모든이들의
도움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하소서.

11월에는
내 마음이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아직도 남아 있는 욕심과 미움과 갈등을 버리고
빈 마음을 바라보면서 만족케 하소서.

12월에는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계획한 일들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